

하나님의 말씀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7445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혼에게 도움이 된다.....	4
죽은 후에도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	6
2860 영원한 혼.....	6
5191 혼의 불멸.....	7
죽음에 대한 두려움.....	8
0762 헛된 삶.... 죽음에 대한 두려움.....	8
6637 죽음에 대한 두려움.....	9
사망 시간.....	11
0826 죽음의 순간. 준비되지 못함. 죽음의 순간의 고통.....	11
4033 죽음의 순간. 고난에 대한 설명.....	12
육체적인 죽음.....	14
2144 육신의 죽음 이 후에 걸 모양이 바뀌는 일. 영적인 죽음. 행함과 행함이 없음.....	14
4807 간격과 다리. 새로운 파문. 사랑이 흐르는 영역.....	15
6817 혼의 거처를 바꾸는 일. 육체의 죽음.....	16
운명적인 일들은 아버지의 사랑.....	18
3260 조기 사망. 하나님의 긍휼. 높은 나이.....	18
4127 십자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19
4296 운명.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20
6277 운명적인 사건. 아버지의 사랑.....	21
8772 어린 아이들의 죽음.....	22
영적인 죽음.....	25
4088 영적인 죽음. 생명의 개념.....	25
5024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26
7644 영적인 죽음과 새로운 파문.....	27
죽음의 정복자인 예수 그리스도.....	29
2342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고난과 죽음. 속죄의 희생제물.....	29
461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의 극복.....	30
6514 생명으로 부활.....	31
7086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자신의 가시를 잃게 되었다.....	32
영생의 문을 연 예수 그리스도.....	34
1559 영원의 문은 죽기 전에 건널 수 있다.....	34

5931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나라로 가는 문이다.....	35
5952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36
6512 골고다를 향한 십자가의 길.....	37
6850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의 문을 열었다.....	38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40
1901 나를 믿는 사람.....	40
6616 죽음에 대한 두려움.....	40
7906 나를 믿는 자는.....	42
5493 위로가 충만한 아버지의 말씀. 죽음을 알려줌.....	43
영의 나라.....	45
2554 태어나고 죽는 일. 죽음. 영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	45
3916 죽음의 잠과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깨어나는 일의 오류와 진정한 의미.....	46
5449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47
6312 저세상에서 재회하는 일.....	48
7096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라.....	49
고인을 위한 애도.....	52
0470 주님 안에서 죽음... 슬픔... 불쌍한 혼과 기도.....	52
1402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일.....	53
7247 나는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53
2912 죽음을 염두에 두라.....	54
7480 죽음아 너의 가시가 어디 있느냐?.....	55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혼에게 도움이 된다.

B.D. No. 7445

1959년 11월 3일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너희의 시간적인 제한을 생각하라는 권면을 받는다. 왜냐면 너희 육체의 죽음 후,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스스로 만든 축복된 상태나 고난과 고통이 충만한 상태를 생각하면, 너희가 의식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주 죽음을 생각하면,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헤아려 보려고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단지 짧은 기간 동안에만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이 땅에서 살아야 함이 이해할 수 없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느낌으로 이미 너희 혼이 계속 사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나"인 너희 혼이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생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혼은 자신이 계속 산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산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은 항상 단지 너희 혼에게 유익하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확실하게 죽는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너희에게 단지 내면으로부터 동인이 되어 혼을 위한 작업을 하려는 혼이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혼을 완성에 이르게 하려는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얼마 동안 자신이 아직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 안에서 이런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세상이 그를 유혹하고 그를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을 자신으로부터 물리치고 항상 단지 가능한 것을 삶으로부터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영적인 재물이 없이 저세상에 도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저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두운 가운데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거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운영에 대한 경고받아야 한다.

너희가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면, 너희는 틀림 없이 너희의 삶을 바꾸려는 시도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무능력하고 어두운 가운데 죽는 것을 느낌으로 두려워하고 이전에 이미 너희가 빛과 능력을 얻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단지 짧은 동안이라도 항상 영적인 생각을 도와주는 영의 말을 들을 자세가 되면, 영이 내면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죽음과 죽음 후에 대한 생각은 영을 향한 생각이고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생각이 유익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특별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자주 말씀이나 사례를 통해 행하게 자극을 받아야 할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죽어야만 함을 자주 생각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죽음 후의 너희 혼의 상태를 아직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단지 너희 혼을 위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왜냐면 혼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선하게 살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은 실제로 고통에 도달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 땅의 삶이 단지 아주 짧을 수도 있다. 그는 항상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왜냐면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성숙해지고 자신의 성장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영을 향한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죽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단지 자신의 거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혼이 이제 거하게 될 영역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혼이 거하게 될 영역은 영원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빛과 축복의 나라이다.

아멘

영원한 혼.

B.D. No. 2860

1943년 8월 25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영적인 힘으로, 쇠하지 않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볼 수 있는 피조물들은 지속적인 변화 아래 놓여 있다. 이 피조물들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지라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며, 자체가 변화되어 간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안의 영적인 존재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형체를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물질을 분해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 성장하도록 돕고, 절대로 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되기까지, 계속 성장하게 한다.

인간도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이지만, 단지 마지막 형체인 육신이 일시적이고, 그 안의 영적인 존재인 혼은 계속 존재하고, 육신이 없는 존재로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 간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혼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혼은 본질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 마지막 성장을 위해 육신의 걸 형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육신이 사망한 후에, 혼은 어떤 걸 형체도 없이 계속 살아 있고, 이 땅에 전혀 의존할 필요가 없고, 땅의 요소가 전혀 없는 영의 존재들만이 혼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로 창조한 것의 형체와 그의 상태는 아주 다양하다. 비록 창조물이 영원히 소멸될 수 없지만, 창조물의 다양함에 따라 많이 또는 적게 볼 수 있다.

모든 창조된 것이 형체 안에 있을 때만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눈은 이런 형체만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단지 높은 성장단계에 있는 존재가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혼의 영원성을 의심해왔다. 왜냐면 사람은 자신이 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생각해보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그러므로 비록 이 땅의 걸 형체를 잃어버릴 지라도,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자신 안의 영적인 존재를 깨달을 때, 외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물질을 성장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런 목적을 위해 필요한 걸 형체로 여긴다. 그러면 그는 영적인 존재에게 끝이 없음과, 외적인 형체는 단지 하나님의 의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존재하고, 즉 영적인 존재가 이 땅 밖의, 물질 밖의, 끝없는 영원한 삶을 위해 이 걸 형체를 자유롭게 해줄 때 까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의 삶을 하나의 거치는 중간 과정으로 깨닫는다. 이런 과정 가운데 영적인 존재와 혼이 그들의 마지막 걸 형체를 극복해야만 한다. 이로써 그들이 전혀 걸 형체가 없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시작되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 영역에서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필요한 성장에 도달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부족했던 자유와 힘을 느낀다. 이 영역에서 그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고, 절대로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한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육신의 죽음 후에 너희 혼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일이 끝이 없음을, 혼이 죽을 수 없음을 생각하려고 시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를 아직 굳게 믿지 못하겠다면, 상상이라도 해보라. 그러면 너희는 불편한 느낌에 빠질 것이다. 왜냐면 혼이 아름다운 운명을 기대할 수 없음을 느끼기 때문이고, 계속 산다는 믿음이 다른 삶의 방식을 갖게 하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고, 사랑의 삶이 너희가 믿음을 갖게 해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육신은 죽어야만 함을 안다. 그러나 혼이 계속 산다는 것을 확실한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그럴지라도 이런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이 이런 사실이 사람 안에서 확신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이제 그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정한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살고, 자신의 과제를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높이 성장하고, 그의 성숙한 정도에 합당한 저 세상의 혼의 운명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는 죽음 후의 혼의 삶을 생각하고, 항상 이 땅의 삶을 영의 나라의 삶과 바꾸려는 자세를 갖게 된다. 왜냐면 그는 영원한 죽음이 없고, 단지 혼이 거하는 장소가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은 그가 단지 이 땅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그의 믿음은 항상 더욱 깊어지고, 확신을 얻는다. 왜냐면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항상 또 다시 제공하고, 그의 생각에 자극을 해주는 지식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계속 사랑을 행한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강하게 되고, 그 안에서 밝혀질 빛을 갈망한다.

모든 사람이 혼이 계속 사는 것을 믿기 원하면, 사람이 진리를 갈망하면서, 혼이 계속 사는 것과 관련된 생각을 하고 설명받기 원하면, 혼이 계속 사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사는 것을 거부하려는 의지가 항상 믿음에 도달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왜냐면 어두움의 세력이 이미 모든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죽음 후의 혼의 삶을 생각나게 해주면, 이런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지나치지 말고 헤아려보려고 시도하라. 이런 생각이 너희에게 다가오면, 이런 모든 생각을 버리지 말라. 왜냐면 진리를 향한 의지가 없이 너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진리를 향한 갈망이 없이는 너희는 가르침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 후에 삶이 있다. 너희 스스로가 이 삶을 이 땅에서 만들어 나가고, 너희 스스로 영원 가운데 혼의 운명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므로 혼이 고통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영적인 죽음에 빠지지 않게 돌봐야 한다. 왜냐면 혼은 사람 안에 실제적인 것이고, 육체가 소멸될지라도 계속하여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너희가 실제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혼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해보라.

아멘

헛된 삶.... 죽음에 대한 두려움....

B.D. No. 0762

1939년 1월 28일

사를 헛되게 사는지 언제나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삶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리**는 여러 오류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 땅의 시간이 어떤 영적인 성공도 이루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혼은 가장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러면 혼은 두려운 감정에 빠진다. 혼은 이 땅의 삶의 끝이 항상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중에 처할 고통이 가득한 상태를 느낀다.

그러면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운 감정으로 나타난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주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사람이 이 땅의 모든 목표에 도달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올바른 만족을 얻지 못하고, 남김없이 소원을 성취시키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가 세상의 안락한 삶에도 불구하고,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는 이러한 만족하지 못하는 느낌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추구할 것이다.

그는 죽은 후에 계속 산다는 생각이 자신이 내면의 평화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만한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것이 끝나다는 것을 깨달아야 만한다. 이 생각이 그에게 안전한 느낌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한 느낌을 더욱 갖게 한다. 왜냐하면 그는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죽은 후에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과 고민이 자주 그가 영적인 질문에 깊이 빠져 들게 만들고,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적인 모든 것의 헛된 것과 가치 없음을 밝은 영으로 깨닫고, 주의를 헤아려볼 수 없는 것에 더 기울이게 한다. 그러면 그의 세상 것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 정도로 그의 영이 활발해진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그의 주변에서 그를 위해 싸우는 선한 영의 세력들을 통해 혼에게 도움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은 세상적인 욕망을 항상 쉽게 성취시킨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들은 세상과 세상의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항상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 앞에 권세가 없이 무능력하게 선다. 그러면 자신들의 연약한 상태를 깨닫고, 두려움이 뿌리를 내리고, 이 두려움이 죽음의 끔찍함을 극복하는 길을 찾도록 의지를 움직인다. 이 길은 자신의 아래에 삶과 죽음이 있는 영원한 창조주와 연합이 되는 길이다. 깨달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혼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죽음은 어두움과 밤을 의미한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을 향한 갈망이 영을 어두움으로 감싼다. 이러한 상태는 영원한 죽음과 같다. 단지 세상을 향한 갈망을 극복한 사람만이 밤을 벗어

나 빛에 도달할 것이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다. 그는 아무런 의심이 없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영을 물질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조건이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의 모든 발걸음은 혼을 지원하는 일을 의미할 것이고,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람이 진리의 빛 가운데 서는 목표에 도달한다면, 죽음의 끔찍함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날에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은 진실로 헛된 삶이 아니었다."

아멘

죽음에 대한 두려움.

B.D. No. 6637

1956년 9월 6일

영적인 죽음은 세상적인 죽음보다 더 끔찍하다. 영적인 죽음은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육체의 죽음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 대한 죽음 후에도 계속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는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혼이 불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혼이 이런 두려운 의식을 육체에게 전한다. 그러므로 육체는 그에게 가능한 동안 죽음에 대항해 거부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원하지 않는 가운데 혼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깨달음이 부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도움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도움을 청하기만 했으면, 그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혼은 전적인 밤 가운데 있고 혼이 다가가고 있는 더 깊은 밤을 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성숙한 혼은 전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기다린다. 혼은 그의 육신의 곁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갈망하고 자신이 믿는 분에게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그에게 의탁하고 그의 긍휼에 의탁한다. 이런 혼들은 자주 이미 죽기 전에 그들이 기다리는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 혼은 행복한 가운데 눈을 열고 육체를 떠나 그들이 보았던 나라로 도피하기 위해 영원히 눈을 감게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지를 가르쳐 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웃들이 이런 혼들이 아직 마지막 순간에 깨어나 그들을 돕기를 원하고 도울 수 있는 한 분에게 도움을 청하게 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만 한다. 혼이 죽음에 대항해 싸우고 두려워하는 일을 알게 된 사람이 이런 혼이 내적인 평안을 갖게 돕기 원하면, 그런 모든 사람들은 조용하고 긴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혼이 이런 도움을 느낄 것이고 마지막 구원의 닻줄을 붙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혼이 육체를 떠나면, 혼은 이웃의 사랑에 의해 도움을 청하는 긴밀한 기도에 자신의 귀를 닫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로써 아직 빛과 올바른 깨달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혼들을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도와줘야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혼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 자신이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낀다면, 혼이 축복된 평안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혼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가장 큰 긍휼과 사랑의 역사이다. 그

러나 도움을 주는 일은 이제 단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부르고 그가 이런 혼을 긍휼히 여기도록 기도하는 일이고 이런 사랑의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다. 기도는 혼에게 혼이 가장 어두운 밤을 피하게 해주는 구원이 될 수 있다.

아멘

죽음의 순간. 준비되지 못함. 죽음의 순간의 고통.

B.D. No. 0826

1939년 3월 24일

사의 한 가운데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향한 질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리** 때 갑작스러운 종말을 향한 생각이 든다. 그는 초기에는 이 질문을 떨쳐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항상 또다시 이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질문에 집중하도록, 지속해서 자극을 받는 것과 같다. 이는 자신의 종말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향한 처지를 밝히려는 지속되는 경고와 같다.

영의 세력은 모든 순간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이를 다시 기억하게 한다. 이러한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진실로 단지 혼에 유익을 준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순간이 이 땅의 존재를 이미 끝내게 할 수 있다. 누구도 자기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다면, 그의 이 땅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언제든지 마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는 죽음 이후에 자신의 계속되는 삶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자신의 이 땅의 과제와 전적으로 일치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땅의 삶이 단지 저세상의 실제적인 삶을 위한 준비기간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지 엄격하게 자신을 점검해 본다면, 그가 하늘과 이 땅의 창조주를 섬기는 일에 관심을 둔다면, 그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구하고, 이로써 의식적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의 혼에 작업을 한다면, 죽음을 향한 생각이 그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죽음을 오히려 편안하게 느낄 것이고, 죽음의 시간을 육체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시간으로 보는 법을 배울 것이다.

반대로 죽음을 향한 모든 생각을 두려워하며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해주는 경고에 전적으로 무관심하고, 지나가게 하는 사람들은, 편안함으로부터 자신을 깨울 수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 땅에서 쉬운 삶을 살 것이다.

그들은 어떤 책임감도 없이 날마다 계속하여 살 것이다. 그들은 계속 산다는 가능성을 이유로 어떠한 제한도 자신에게 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삶의 과제를 알려주는 모든 일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으로 끔찍한 불안에 빠질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이 전에 오랫동안의 고통을 통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의 모든 끔찍함을 맛볼 것이다.

그들에게 죽음의 순간은 환영할 만한 시간이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든 힘을 사용하여, 이 땅의 그의 존재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다른 삶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삶을 아주 적게라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떠나는 순간이 오고, 자주 예상치 못하게 온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모든 고통을 맛보게 된다.

그의 종말은 진실로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죽음의 순간을 자신의 구원의 순간으로 만드는 일을 자신의 손 아래 가지고 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책임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산다면, 아버지와 지속해서 연결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어린 자녀와 같은 신뢰를 두고, 매 순간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에게 다시 드릴 수 있게 산다면, 죽음의 순간을 자신의 구원의 순간으로 만든 것이다.

아멘

죽음의 순간. 고난에 대한 설명.

B.D. No. 4033

1947년 4월 30일

너희는 절대로 너희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 죽음의 순간에 함께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너희에게서 전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 너희의 마지막이 어렵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너희의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한다. 너희 혼이 아직 변화될 수 있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종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다. 왜냐면 고난이 짧은 시간 동안에 혼이 저 세상에서 빛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성장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혼이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을 깨달으면, 혼은 자신의 창조주에게 감사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여겨야만 한다. 죽음에 고난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끝맺음이 사람에게 축복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축복이다. 왜냐면 혼이 실제 고통을 통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축복된 영들의 나라로 즉시 올라가기 때문이다. 혼은 단지 육체적으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땅을 떠난다. 혼은 아직 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의 성장한 입자를 가지고 떠난다. 왜냐면 이 땅의 모든 고난의 정도가 아직 혼을 감싸고 있는 걸형체를 분해시키기 때문이다. 이 땅에 자신을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남김없이 자유롭게 만드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구속을 위해 이 땅의 삶을 활용하였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실제 혼의 평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육체의 고통을 불의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의 혼이 육체가 죽고, 육체의 고통이 끝나는 것을 알고, 비록 혼이 이런 깨달음을 육체에게 더 이상 전해줄 수 없을 지라도, 육체의 고통을 통해 혼이 유익을 취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육체가 혼의 온전함을 느끼면, 육체는 혼에게 거할 장소를 제공하는 자신의 과제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혼과 분리된다. 죽음의 순간은 너희 모두에게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혼에게 더 이상 고난이 필요하지 않으면, 혼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단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면, 죽음의 순간은 너희가 빛의 나라에서 깨어나기 위해 너희에게 축복된 잠이 드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죽음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고난이 아직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그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육체가 단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혼은 전적인 기쁨으로 육체를 떠나고 빛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멘

육신의 죽음 이 후에 걸 모양이 바뀌는 일. 영적인 죽음. 행함과 행함이 없음.

B.D. No. 2144

1941년 11월 8일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하는데 생명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일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한다. 그가 힘을 빼앗긴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그는 죽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걸 형체 자체가 변화된다. 걸 형체는 분해가 되고, 모든 입자들이 다시 새로운 형태 안으로 영접되기까지 분해되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 다시 말해 영적인 입자들이 형체를 벗어나면, 형체는 실제 한때 자신이 정함 받은 사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형체는 이제 새롭게 정함 받는 일을 성취해야 만한다. 형체는 어떠한 새로운 형체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여해야 만한다.

입자는 새로운 형태 안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분해가 되고, 이런 과정을 위해 다시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걸으로 보기에 옛 형체가 사라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의 걸 형체 안에 있는 영적인 입자들이 다른 영적인 입자들과 연결되어 새로운 걸 형체를 형성한다. 왜냐하면 걸 형체로 굳어진 영적인 입자들이 아직 자신의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입자들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제 영적인 입자가 다시 이런 새로운 형체를 자신이 거할 장소로 배정받으면, 그의 섬기는 일이 시작이 되고, 이로써 형체가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가, 창조물은 어떤 방식이던지 상관없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행하는 일은 형태 안의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하게 한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것은, 즉 일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게 성장한다. 단지 죽음의 상태 만이 그의 성장의 정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물질은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물질은 변화가 되고, 단지 서로 다른 기간에 걸쳐 변화가 되기 때문이다. 가장 굳은 형체도, 비록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을 지라도,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즉 빛의 전달자의 역사와 연관된 빛의 비추임으로 인해 일을 하도록 자극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형체 안에서도 생명이 활동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써 형체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물질이 사람의 눈에 생명이 없게 보일지라도, 전적으로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인간의 단계에서 생명이 없는 상태가 있다. 인간의 단계에 있는 존재들에게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가장 큰 생명의 힘이 흘러 간다. 그러나 사람에게 제공되는 생명의 힘을, 그에게 주어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자신을 위로 성장하게 만드는 자신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활용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을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일을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으면, 그는 전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가 사랑을 행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 사랑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의 힘을 부어준 일을 행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의 성장은 정지되게 된다. 이런 상태는 생명이 없는 상태이고, 죽음의 상태이며, 가장 끔찍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는 단지 존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의 상태는 무기력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존재 스스로 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가 그에게 힘이 주어질 때, 이 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겉 형체에게 죽음은 단지 새로운 겉 형체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동시에 영적인 입자들이, 자신들에 의해 형성된, 겉 형체 안에서 계속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가장 끔찍한 일이다. 왜냐하면 존재가 자신에게 제공되는 마지막 은혜를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에게 부여하는 생명의 흐름을 섬기는 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존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당시에 가졌던, 같은 성장 단계에 머물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하다. 존재는 그의 일하지 않음을 통해 힘이 없게 되었고, 힘이 없는 상태로 저 세상으로 들어 간다.

아멘

간격과 다리. 새로운 파문. 사랑이 흐르는 영역.

B.D. No. 4807

1949년 12월 30일

인류와 나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확신을 가지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순수한 진리를 전하지 않는 이 땅의 나의 대변자들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나의 대적자에게 향한다. 그들은 나의 대적자의 나라인 세상으로 향하여 이 땅의 삶 가운데 줄여야 할 나와서의 거리를 증가시키고,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지고 나와 그들을 분리하는 간격을 넓힌다.

그러나 이런 간격은 단지 특정한 한계까지만 커진다. 왜냐하면 한계를 초과하면 내 사랑의 힘이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 안의 영적인 존재가 다시 굳은 물질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나를 떠난 사람들도 아직 내 사랑의 흐름의 영역 안에 거한다. 그러나 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은 영적인 형체의 붕괴를 의미하고, 이런 일은 동물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창조물의 해체와 재 형성을 의미한다.

어떤 존재도 벌을 받지 않고 나에게서 멀어 질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가 나를 잃으면, 그가 생명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 가운데 머물기 원하고 생명을 영원히 잃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는 나를 추구해야만 하고 나를 찾아야만 한다. 그가 나에게 도달하려는 추구를 해야만 한다. 즉 그는 자신과 나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추구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를 영원한 아버지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이끄는 다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격을 극복할 길이 없다. 믿음이 유일하게 이 다리를 볼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믿음이 나를 부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믿음이 기도로 인도한다. 이 기도가 나에게 인도하는 가장 안전한 다리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지나치고,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어 할 사람들조차도 자주 이 다리를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 생명이 없고, 그들이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길을 가고, 항상 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을 걷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심

장에서 나오지 않고, 그러므로 내 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간격을 넘어 나에게 도달하는 유일한 길인 다리를 건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 이 다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너면 이웃에게는 너무 늦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길이 끊어지고 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심연이 그들을 삼키고 땅이 그들을 삼킬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굳어지고 다시 물질이 될 것이다. 왜냐면 존재가 위를 추구하지 않고 깊은 곳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아멘

혼의 거처를 바꾸는 일. 육체의 죽음.

B.D. No. 6817

1957년 4월 28일

혼은 실제의 너희 자신이고 불멸하다. 혼은 이 땅의 과정을 마치게 되는 육체의 죽음 후에 혼이 단지 나에 대한 저항을 하는 가운데 머물러 이런 저항을 통해 깊은 곳으로 빠지지 않으면, 다른 영역에서 계속 살며 계속 성장하기 위해 거하는 장소를 바꾼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을 떠나야만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야 하고 인간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지금까지 해줄 수 있었던 아름다움과 행복함보다 다른 영역에서 사는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

너희는 실제적인 너희 자신이 걸형체를 벗는 날을 희망의 기쁨을 가지고 맞이해야 하고 어려움이 너희로부터 사라지는 날과 너희가 가볍게 어려움이 없이 진실로 너희가 예상할 수 없는 영광을 제공하는 진정한 고향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날을 희망의 기쁨을 가지고 맞이해야 한다. 너희 혼이 단지 혼을 끝없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장소로 바꾸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음을 너희는 기뻐해야만 한다. 너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편안하지 못한 가운데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느냐?

왜 너희 사람들에게 죽음이 끔찍한 일이 되었느냐? 왜 진실로 단지 다른 영역으로 옮기는 과정이 너희 안에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느냐?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았음을 너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느끼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혼이 너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었을 빛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이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고 그가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았다면,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세상의 걸형체를 벗기를 갈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에게 자신의 진정한 고향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 안에 사랑이 밝은 빛이 타오르게 하고 그가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나 고통도 없고 그가 어떠한 환란도 더 이상 당하지 않는 내 사랑 안에서 자신이 안심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을 미리 바라보면서 내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단지 항상 그에게 선명하게 내 뜻을 알려주는 내면의 음성을 따르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기 원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미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면, 자신이 죽은 후에 고난이 충만하고 어려운 환경을 이런 보호와 바꾸는 축복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은 그가 이 땅의 삶을 내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가장 좋은 증거이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사람들이 올바른 깨달음의 도달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그러므로 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삶을 항상 더욱 증가시키려는 대적하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들은 걸형체에게 주어진 제한을 똑 같이 자신에게도 적용시킨다.

그들은 그들의 부족한 변화로 인해 예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는 영역으로 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후에 아주 절망적인 운명을 짊어져야만 하는 혼과 그들의 진정한 고향의 영광을 전혀 체험할 수 없는 혼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단지 자신의 육체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모든 방식으로 누리려고 한다. 비록 혼에게 깊은 곳을 벗어나 높은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를 위해 이 땅에서 보다 더 많은 극복하는 일과 수고가 필요하고 도움이 없이는 이를 수 없고 혼 자신이 의지를 드러야만 하고 이 일을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쉽다.

나는 소멸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그 자신의 행복한 운명이나 또는 고통스런 운명을 만든다. 사람들이 그들의 육체가 사는 것으로 보지 않고 육체 안에 거하는 혼을 자신의 실제적인 자기라는 것을 깨닫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믿는 법을 배우면, 그들은 비로소 이 땅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 것이고 단지 세상의 육체에게만 해당되는 그러나 육체 안에 거하는 혼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고 혼들은 이제 자신의 진정한 고향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자신의 걸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시간을 갈망할 것이다.

아멘

조기 사망. 하나님의 공휼. 높은 나이.

B.D. No. 3260

1944년 9월 18일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해진 상태에서 이 땅의 삶에서 영의 나라로 부름 받을 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이런 일이 또한 겉으로 보기에 불의한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 위해 택한 반면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고통 당해야만 한다는 사람들의 관점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항상 알고, 이로써 이 땅에서 더 높게 성장하는 일이 의문시 될 때, 비로소 생명을 끝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의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는, 존재가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는 일을 허용 받는 성장 정도에 도달하기 까지 항상 단지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그의 성장 과정을 계속 같지, 정지시킬지 또는 퇴보하게 할지를 정한다. 이런 일은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써 초기에 가졌던 자신의 성장 상태를 증가시켰는지, 그런 후 자신의 성장이 정체되는 위험에 빠졌는지 또는 그가 그의 육신을 입기 시작할 때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그런 후 퇴보할 위험에 빠졌는지에 달려 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높게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들이는 일은,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계속 퇴보하거나, 계속되는 삶을 자신의 혼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공휼의 역사이다. 왜냐하면 그가 육신을 입는 은혜의 기간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더 오래 살게 되면, 그의 죄짐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젊은 나이에 높은 곳을 추구하고, 그의 추구를 중단한다면, 그의 지금까지의 성장이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드리고, 그에게 저세상에 계속 성장할 기회들을 준다.

그러나 또한 사람이 노년에 자신의 의지를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그에게 아직 부족한 성장이 갑자기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의 오랜 동안 자신의 혼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는 더 높은 성장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장수하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인간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그의 삶을 정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의해 정해지고, 절대로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이 맘대로 정한 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이 땅에서 성장할 기회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 이 땅에서 성장할 기회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적게 주의를 받고, 사람들은 이에 합당한 가르침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자신을 거부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언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에 도달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의 이 땅의 수명도 영원으로부터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목적에 아주 합당하고 성공적으로 깨달은 대로 수명은 아주 서로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더 높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 땅의 삶을 절대로 조기에 끝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계속하여 인간이 이 땅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성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돌보고, 성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절대로 인간으로부터 빼앗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인간의 의지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자주 혼이 완전한 배도하는 일로부터 보호한다. 즉 하나님의 그의 이 땅의 삶을 끝내지 않으면, 맞이하게 될 퇴보로부터 혼을 구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높은 나이에 도달한다. 반대로 높은 나이는 주변 세계가 볼 수 없을지라도 서서히 성장하는 일을 증명한다. 장수하는 일은 항상 은혜이다. 그러나 단명한 삶도, 비록 사람이 항상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항상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

아멘

십자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B.D. No. 4127

1947년 9월 21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 곁에서 함께 갈 것이고,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도울 것이다. 왜냐면 나의 사랑이 너희 혼에 해를 끼치지 않고 너희의 고난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곳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십자가가 너희를 짓누르면, 이런 일이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알라. 내가 너희의 영적 위험을 알고, 이런 영적인 위험을 가장 먼저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왜냐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육체보다 혼이 더 큰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종말과 함께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는 것을, 종말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형성시켜, 너희가 빛의 영역에 거하는 일이 보장되게 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의지에 시험에 합격하여, 기뻐하며 이 땅의 육체를 벗어나, 육체를 저 세상에서 전적인 자유와 교환할 수 있게 하라. 그런 삶이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하였던 모든 고난에 대한 보상을 너희에게 해줄 것이고, 너희는 절대로 더 이상 이 땅을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고난이 너희를 더 많이 짓누를수록, 너희는 이 땅의 삶을 희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영의 나라를 위해 정화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자신을 위해 고통을 당하게 한 일로 인해, 나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가 나에게 하는 긴밀한 기도를 통해 고난을 피할 수 있다는 위로를 해주고, 너희가 자녀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며, 아버지께 다가오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위로를 해주고, 나는 사랑이 충만하게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다. 다시 말해 나는 위험을 줄여주는 해결책을 찾는다. (1947년 9월 21일) 나는 너희의 십자가를 줄여주어 십자가가 너희를 더 이상 무겁게 짓누르지 않게 하고, 너희가 나로부터 능력을 얻기 때문에 너희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 자신이 너희에게 이 말을 했다.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너희는 의심하느냐? 너희가 단지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짐을 진다면, 모든 십자가가 너희에게 견딜만 한 것을 믿으라. 십자가가 너희에게 무겁게 느껴지면, 이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로 여기라. 왜냐면 내가 죄없이 고통 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서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의지의 방향을 알고, 그들

이 이 땅에서 행한 사랑의 역사를 알고, 내가 높여 주기 원하는 그들의 혼의 상태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짊어지라. 이는 너희에게 최선이 되도록 주어진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어떤 십자가도 주어지지 않으면, 이 땅의 삶에 너희의 모든 소원이 너희에게 성취되고, 더 많은 것들이 이뤄지면, 너희는 절대로 같은 시간에 너희의 목표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너희를 향한 큰 사랑의 증거라는 나의 말씀을 안다면, 너희가 삶 가운데 거의 절망하게 하는 삶의 위험에 빠지면, 이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너희 운명에 순복하라. 하늘의 너희의 아버지가 진실로 자녀들의 혼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목표대로 혼이 성장하게 하는 가장 큰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아멘

운명.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B.D. No. 4296

1948년 5월 11일

각 개인의 삶의 과정은 예정이 되어 있다. 그가 자신의 혼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려면,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면 모든 운명을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신의 뜻에 따라 운명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삶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이 긴밀한 기도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뢰로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면, 하나님은 바꿀 것이다.

깊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먼 길을 가야만 한다. 이 길이 항상 평탄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은 위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 장애물은 제거돼야만 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그러나 목표는 높은 곳에 있고, 올바른 인도자가 지원하지 않으면, 모든 오르는 길은 어렵다. 너희의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너희 결의 인도자로 삼는 동안에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는 동안에는, 너희는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길이 가파를 수록, 이 길은 더 짧은 길이고, 너희는 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위에 도달하면, 너희는 너희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준 너희의 인도자에게 감사할 것이고, 모든 고난은 끝이 날 것이다. 인생의 운명이 더 어려울수록 너희에게 더 높은 목표가 주어지고, 그럴수록 더 밝은 빛이 너희에게 비추게 되고, 깊은 곳의 모든 어두움을 극복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너희가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받아드리고, 항상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너희의 위를 향한 가파른 길을 너희가 평탄한 길로 느끼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가장 큰 위험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혼의 평안과 평화를 줄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힘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할 것이고, 너희는 어떤 일도 어렵게 느끼지 않을 것이고, 그럴지라도 위로 향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하나님의 의지에 순복하는 일이 너희가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고, 너희는 이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이 너희를 붙잡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고, 더 이상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단지 영원한 축복이 있는 빛의 나라인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갈 때까지, 너희는 어떤 것도 장애물로 느끼지 않을 것이고, 항상 기쁘고 쾌활한 가운데 너희의 이 땅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아멘

운명적인 사건. 아버지의 사랑.

B.D. No. 6277

1955년 6월 6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 돌봄이 너희를 뒤따른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멸망을 원하지 않고 너희의 축복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어둠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빛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높은 곳으로 이끌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너희를 비참함과 위험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어둠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혼자서는 성장을 위한 힘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수단과 내 수단의 효력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잔인하다고 쉽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내 사랑을 믿으라. 사랑이 내가 역사하게 하고 내가 모든 일 가운데 항상 단지 너희를 축복되게 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 내가 단지 일어나는 일이 주는 효과를 안다. 내 운명적인 개입이 없다면, 너희가 어떤 길을 갔을 것인지 내가 단지 알고 그런 길이 오류로 인도한다면, 내가 단지 이를 안다. 내가 이제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일어나게 하는 일은 항상 내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고 너희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게 보일지라도 그런 일이 축복되게 역사할 것이다.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내 편에서 고통이 가득한 개입이 긴급하게 이뤄질 것이고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될 것이다. 내 손이 항상 자주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게 될 것이고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혼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운명을 자신의 손에 가지고 있는 분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단지 그 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인정하게 되고 하늘과 땅을 운행하는 하나님인 인도자를 믿게 된다. 그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믿음이 그들을 계속 인도할 것이다.

가장 작은 피조물도 내 사랑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단지 모든 존재의 생명을 보장한다. 이로써 존재들이 언젠가 자유의지를 가진 단계에 들어서게 하고 마지막 이 땅의 과제를 성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미 이런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전의 그의 이 땅의 과정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얼마나 더 많이 도와주겠느냐?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의 이 땅의 길의 절벽을 알고 사람이 이런 절벽을 극복하거나 또는 극복하

는 일에 실패할 위험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뒤 따르고 돌봐줘 그가 물러서게 하거나 또는 그를 다른 길로 계속 인도한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하는 너희는 내가 항상 돌보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한 내 아버지의 돌봄이 이웃이 그에게 행할 수 있는 돌봄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고아로 만드는 일과 가정을 먹이는 사람을 빼앗는 일과 사람들이 소유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는 일을 허용할 수 있는지 너희에게 의심스러운 질문이 생기면, 너희는 항상 이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모든 돌보는 일을 맡을 수 있다. 나는 외롭고 홀로 있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찾아야만 한다.

그들이 가장 큰 위험 가운데 나와 연결을 이루는 일이 내가 바로 원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믿음을 알게 해야 할 말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이 땅의 고통이 사람들을 짓누를 때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지지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권세에 대한 의심 위에 의심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심한 위험의 시간이 다가 온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길을 나에게 향해야 한다. 나는 진실로 위험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내가 단지 거두어들일 수 있고 줄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이 이를 믿는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 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 너희에게 좋고 유익하게 보이는 것들이 항상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말라. 내 길은 자주 다르다. 그러나 내 길은 안전하게 목표로 인도한다. 이런 믿음으로 항상 나에게 다가오라.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어린 아이들의 죽음

B.D. No. 8772

1964년 3월 7일

이 땅에서 너희의 도움이 필요 하기 때문에 너희의 자유의지가 선행이 될 경우에 나는 너희에게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나는 실제로 나를 위해 그릇을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내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의지 만이 정할 수 있고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의지 만이 성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행할 수 있기 위한 선행조건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주 있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이런 일을 자유의지로 하려고 하는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이런 그릇들을 유지할 줄을 알고 있고 모든 위험한 환경 가운데 인도하며 세상을 향한 소원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없고 그가 단지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 그의 세상적인 소원을 전적으로 뒤로 할 때 특별히 인도한다.

그러므로 포도원 농부의 일이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열린 귀를 가지고 자신 스스로 나와 연결이 되려고 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 땅의 내 종들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너희의 노력은 항상 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내 나라에 많은 학교들이 있다는 것을 모든 우주 안에 한때 타락했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돕는 창조물들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었다. 모든 창조물들은 자신의 고유의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은 존재들이 항상 성장하게 섬기는 일이다. 존재들의 상태에 따라 창조물 안의 생활 형편이 달라 진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혼들은 나만이 알 수 있는 특정한 기질 때문에 다른 행성에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다시 다른 행성에서 육신을 입게 된다.

이런 혼들은 이 땅에 인간으로 다시 육신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그에게 사명이 주어 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작은 어린이들의 그리고 가장 작은 어린이들의 죽음을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의 혼이 이 땅의 과정을 거칠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들이 더 이상 나를 대적한다고 여길 수 없어서 내가 다른 수 많은 학교에서 그들에게 계속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존재들에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학교에서 이들 대부분은 그들의 과제를 성취시킨다.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들은 영의 나라에서 복된 상태에 도달한다. 그들이 이미 높은 빛의 정도의 도달했으면 다시 사명을 목적으로 이 땅에 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을 수 있다. 한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데는 수많은 환경조건들과 기질들과 그리고 이 전 단계에서 이미 도달한 성장 정도가 역할을 한다.

도달한 성장 정도에서 다시 뒤 떨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뒤 떨어질 수가 있다. 자신의 상태에 맞지 않는 모태에서 육신을 입는다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커져서 전적으로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이 혼을 그의 곁형체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높은 곳을 향한 그의 성장이 쉽고 확실한 곳으로 옮겨 준다. 왜냐면 이 혼은 더 이상 전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타락한 자들을 나에게 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다. 만약에 존재들이 이 땅의 과정을 거칠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은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창조물이지만 그에게 가장 높은 영적인 성공을 줄 수 있다.

자유의지가 또는 다른 이유가 혼의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느니라 나는 이전에 미리 볼 수 있어 나는 혼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 속에서 견딜 수 없고 의지적으로 나를 대적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항상 돕는 역사를 한다. 너희 사람들은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모든 것에는 내 사랑과 지혜 안에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내 편에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영접해야만 한다.

왜냐면 어떤 것도 목적과 의미가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단지 한때 나로부터 떠나간 존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영적인 것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나는 끝 없이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너희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고 사역하게 하였는지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돌봐 주고 모든 방식으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한 혼의 저항하는 정도를 알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그의 저항력이 줄어 들었는지 줄어 들 것인지 또는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에 합당하게 나는 혼들을 그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1964년 3월 7일)

이 땅의 과정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나는 혼에게 이미 도달할 성장 정도를 잃고서 뒤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안다. 그러면 나는 이 의지가 뒤떨어지는 것을 제외시킬 수 없지만 자유의지를 정할 정도가 아닌 단지 나를 향한 아주 적은 저항을 고려해서 이를 막는다. 그러나 혼은 이 전에 그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써 육신을 입고 살지를 결정해야만 하고 그의 의지대로 이루어 진다.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이들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 다른 조건하에 있게 될지라도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이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 모든 혼들은 그들이 진지하게 원하면, 그리고 정해진 성장 정도에 이르렀고 자유의지로 이런 혼들에게 주어지는 큰 요구를 성취해야 하는 사명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인간으로 임할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없다. 너희는 내 역사와 사역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피조물들 높은 곳으로 도달하게 도울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을 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이 땅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안다. 그럴지라도 나는 단지 자원하는 혼들을 돕기 위해 간섭을 하여 나 자신이 단지 나만이 알고 있는 악한 과정에 변화를 시킨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 이 땅의 삶을 영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나는 연약한 자를 만약에 그가 더 이상 강력한 저항을 하지 않으면 항상 돕는다. 어떠한 방식으로 내 도움이 주어지게 될 지는 내 사랑과 지혜에 맡겨 두어야만 한다. 항상 내 피조물들의 마지막 성장을 돕는 것이 내 노력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항상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내 자녀들을 원하고 이미 나를 추구하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들을 알아보고 이들에게 알맞게 역사할 것이고 이들이 멸망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죽음. 생명의 개념.

B.D. No. 4088

1947년 7월 22일

인간이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이 죽었지만, 단지 영적인 생명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인 반면에, 죽은 생명은 육체에게만 해당이 되는 생명이고, 비록 혼이 주변의 즐거운 환경 가운데 살지라도, 혼에게 빛이 없고, 결과적으로 힘이 없는, 죽음 상태가 혼의 운명인 상태이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은 지속되지 않는 단지 것보기의 삶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깨달음이 없고, 그러므로 것보기의 삶을 실제적인 삶인 영원 가운데 사는 영의 삶보다 앞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너희는 영적인 존재이고, 물질의 겉형체로 둘러싸여 있고, 사라지는 겉형체를 벗으면, 혼이 어떤 상태로 육체를 떠나는지와 관계없이 너희 안의 영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된다. 혼은 겉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지만, 모든 혼이 자유롭게 원하고 창조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 원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일이 혼의 축복이고, 그들이 원래 정함을 받았지만 잃게 된 상태이다. 그러나 원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의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땅에서 "생명"은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장애가 없이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면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장애가 동반된 이 땅의 삶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람이 아직 자신의 이 땅의 과제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하는 대신에 세상 욕망을 성취시킴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 그의 혼의 성장을 위해 그에게 주어진 매일을 헛되이 보내면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또는 의식적으로 일하지 않는 게으름을 벗어나도록 돕는다. 반면에 혼은 영의 나라에서 모든 마취시키는 수단을 사용할 수 없고, 자신의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짓눌리는 상태로 느껴야만 하고, 혼에게 고통이 돼야만 한다. 이로써 혼이 이런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게 한다.

혼의 무기력이 혼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바꾸는 일을 막는다. 혼은 모든 면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혼과 가까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위험에 빠진 혼에게 도움이 주어질 때까지 굶주려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이 그런 기도를 영원으로 보내는 곳에서 혼에게 번개와 같이 깨달음의 순간이 임하기 때문이다. 혼이 이런 순간을 활용하면, 곧 혼 주변의 빛이 더 강해지고, 빛이 없는 끔찍한 고통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생명을 향한 갈망이 이제 혼 안에서 깨어나, 혼이 일을 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나 저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일은 사랑을 행하는 일이다. 이는 혼이 이 땅에서 단지 혼에게 비로소 올바른 생명을 주는 사랑의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고, 영원하게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적인 삶에 단지

유일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은 죽음의 가시가 유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후에 진정으로 죽음의 상태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들이 존재한다는 의식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뿌리 박혀 있고, 자주 그들이 단지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 주변의 혼들의 고통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죽음의 상태에 거해야만 하게 될 가장 큰 위험에 처한다. 왜냐하면 단지 사랑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사랑의 법은 저세상과 같이 이 땅에서 성취시켜야만 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인간은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과 죽음이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그의 죽음을 의미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이 땅의 생명은, 영이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면, 사람이 영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열심히 추구하면, 그가 그의 영이 그에게 하라고 지시한 대로 사랑을 행한다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B.D. No. 5024

1950년 12월 20일

살려는 의지는 죽음에 대해 확실한 승리를 의미한다. 너희가 세상적으로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만약에 사람 안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의지가 강하면, 이런 육체의 죽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비록 내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지라도, 이런 생명에 대한 의지를 내가 좋게 여긴다.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지, 단지 육체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불려가는 것에 대한 전혀 권세가 없고, 이에 대항할 수 없음을 곧 느낄 것이다. 살려는 의지가 이런 죽음에 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은 혼의 올바른 삶을 갈망해야만 하고, 사람의 의지가 이런 삶을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하여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에게 영원한 죽음은 없고, 그는 빛과 능력 가운데 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진실로 죽음을 극복한 것이고 혼이 그의 육체를 떠나는 일은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는 일이고, 육체의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사모하고, 언젠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단지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죽음이 오기를 바라고, 영원가운데 올바른 삶을 위해 이 땅의 삶을 드릴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나치게 그들의 육체적인 삶에 연연해하고,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세상의 삶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을 잃고, 그의 운명은 죽음이 된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삶을 사랑한 혼이 피할 수 없게 나락으로 떨어질 영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런 죽음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잃기 때문이다. 그는 이 땅의 삶을 헛되이 보냈고, 그의 혼은 빛과 능력이 없이 아무런 권세가 없이 깊은 흑암 안에 거한다. 영적인 죽음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의식하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은 단지 살아있는 사람 만이 이룰 수 있는 소원이다. 왜냐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 있는 존재에게 내재해 있는 힘이 필요하고 반면에 힘이 없는 존재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흘러간 삶의 힘이 영적인 나라에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단지 순수하게 세상 일만을 위해 세상 재물을 모으기 위해 사용될 수 있거나 또는 쇠하지 않는 보물을 주는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영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지가 진지하게 영원한 생명을 향해야 하고 이로써 그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삶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죽음에 대한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영적인 죽음과 새로운 파문.

B.D. No. 7644

1960년 7월 9일

영적인 죽음은 혼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운명이다. 왜냐면 혼이 이 땅을 떠나면, 스스로 영적인 죽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은 존재하고 자신을 의식하지만 전적으로 능력과 빛이 없다. 이는 측량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만약에 사람편에서 효과가 충분하게 중보 기도하여 혼이 이를 통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제공받지 않으면, 혼이 스스로 자신을 바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해 어떠한 직접적인 저항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게 물질 안으로 파문을 다시 받게 한다.

혼이 이런 상태에 무감각하면, 빛이 충만한 영의 세계에서 또는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은 아주 강박해져 분노에 불타오르는 가운데 그가 믿는 것처럼 자신을 가두고 있는 권세에 대적할 수 있다.

그러면 혼은 항상 더욱 깊은 곳으로 빠지고 강박해져 굳은 입자가 된다. 그러면 저세상에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혼은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의 길을 다시 한번 가야만 한다. 왜냐면 언젠가 이 혼도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깨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인 죽음에 빠질 위험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 왜냐면 그들은 종말의 때에 생명을 얻기 위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랑이 없이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산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물질로 강박해져 있다. 왜냐면 그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혼에게 만들어 줘야 할 영적인 생명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질적인 세상의 주인에게 빠져서 그의 재물을 추구한다. 그의 재물은 혼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재물은 혼에게 확실하게 영적인 죽음을 준다. 그들이 이런 사랑이 없는 상태로 저세상으로 가면, 그는 아주 큰 위험 가운데 있다. 왜냐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를 사랑하는 생각을 영의 나라로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친구를 희귀하게 두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의 생각만이 혼을 구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랑하는 생각은 모든 사랑이 충만한 기도는 이런 혼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혼이 변화될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역사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혼은 영원한 죽음을 벗어난다.

그러면 혼은 혼에게 새롭게 파문을 받게 하는 상태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모든 사람은 사랑의 힘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생명에 도달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죽은 자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희가 사랑이 없이 살면, 너희 혼의 영적인 입자가 결국은 강박해질 것이고 혼은 비참한 상태에 처할 것이다. 왜냐면 죽음은 그 자신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가운데 그러나 고통이 충만한 무기력과 어둠 가운데 근근이 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는 이 상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왜냐면 이 땅에서 피하는 일이 너희에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는 항상 사랑의 역사를 행할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면, 죽음의 위험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생명으로 깨어나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죽음을 극복한다. 너희 모두는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너희가 단지 이 불씨에 불을 지피면, 절대로 이 불을 꺼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이 항상 새로운 능력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안의 이런 사랑의 불씨를 한번 타오르게 하면, 너희는 내면으로부터 동인이 되어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게 강요받을 수 없고 단지 너희가 영적인 죽음의 끔찍함을 알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동인이 되어 이런 끔찍함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언젠가 저세상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도움에 의존한다.

너희는 이런 도움이 사람들로 부터 너희에게 행해지면, 그들의 사랑하는 생각이 너희를 뒤따르면, 너희 자신을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다. 단지 사랑이 구속한다. 단지 사랑이 능력이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죽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능력을 얻어야 한다.

아멘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고난과 죽음. 속죄의 희생제물.

B.D. No. 2342

1942년 5월 21일

십자가의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사람이 이 땅에서 드린 희생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의 희생이었고, 죄를 지은 사람의 속죄 제사가 아니었다. 십자가의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합당한 형벌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의 죄를 위해, 이웃 사람들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드린 희생제사였고, 이웃 사람들이 실제 벌어드린 처벌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원하는 속죄제사였다. 십자가의 죽음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예수는 인류를 향한 큰 사랑으로 자신의 육체가 고통 받기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택했다. 그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기를 원했다. 그는 이웃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고통을 받기를 원했다.

그는 죽음 후의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을 떠난 일로 인한 정당한 형벌로써,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에 대한 정당한 형벌로써, 고난과 고통임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 스스로가 고통을 받기를 원하면서, 다시 말해 자원하여 고통을 짊어짐으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줄여주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택했고, 자신의 하늘의 아버지께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희생을 드렸다. 그는 죄악된 인류를 위해 고통과 죽음으로 아버지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왜냐면 예수는 순수하고 무죄했기 때문이다. 그는 죄가 없었다. 그에게는 가장 사소한 죄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말할 수 없게 고통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가장 심각한 범죄를 속죄하는 죽음을 택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사탄의 추종자들인 사람들에게 의해 자신의 순수한 몸을 십자가에 못박게 했고, 또한 그의 혼이 육체와 함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사랑이 된 혼이 사랑없음으로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혼은 사람들의 운명을 건드릴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이런 고통을 받아 들였다. 궁극히 여기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인간 예수가 이런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했다. 그는 모든 욕망에서 자유롭게 되야만 했고,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다. 이로써 그가 비로소 이런 희생적인 죽음을 당할 수 있었다. 그의 사랑은 너무 커서, 단지 이웃 사람을 위했고, 자신의 몸을 위하지 않았다. 이런 아주 큰 사랑이 그가 이런 희생제사를 드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른 고통과 고난을 능가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했다. 왜냐면 그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의 구속사역이 없이는, 이런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영원히 고통 받아야만 하는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건드릴 준비가 되었고, 그의 사랑이 인류의 상상할 수 없게 큰 죄를 속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은 죄로부터 구속되었다. 사람들이 이런 큰 은혜를 의식하게 되면, 그들은 기뻐하고 환호해야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 은혜를 활용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구한다면, 이 은혜가 말할 수 없게 어려운 운명을 피하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과 영의 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사람들은 이런 구속역사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활용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웃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했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했고, 죽음을 이겼다. 그는 그의 사랑이 사람들을 위해 드린 희생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왜냐면 그가 구속역사를 통해 장벽을 허물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구속역사를 통해 장벽을 허물은 일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그는 죽음을 극복했고, 그러므로 묶임이 풀어지게 되었다. 한때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의지는 대적자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이웃 사람들을 위해 성취한 구속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필요한 도움을 청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중보자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자신에게 준 해야할 일을 행하고, 이로써 그는 자신을 죽음의 묶임에서 해방시킨다. 왜냐면 하나님의 대적자의 말을 듣는 일은 그의 혼이 확실하게 죽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했다. 그는 인간이었고 또한 인간으로써 죽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또한 그의 무한한 능력으로 인해 그가 선택한 가장 끔찍한 죽음을 자신이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 사람의 고난과 죄짐을 생각하고, 죄의 결과이고, 죄의 결과였던 그들의 운명을 쉽게 해주기 원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대적자를 극복했다. 하나님은 희생을 받아들였고,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부르고, 그의 은혜와 중보를 구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희생제사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는 일이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일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이 없게 된다. 왜냐면 육신의 죽음 후에 혼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의 혼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빛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은 주님이 이런 역사를 완성했다는 것으로 승리해야 한다. 왜냐면 죽음이 이제 죽음의 공포를 잃었기 때문이고, 영의 나라에서 깨어남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구세주께 드리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고, 구속역사의 은혜를 받기를 구하고, 인간 자신이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로써 지었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에 대한 권세를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

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이룬 인간 예수의 사랑을 의식하게 되면, 그는 기뻐하고 환호해야 한다.

아멘

생명으로 부활.

B.D. No. 6514

1956년 3월 31일

사람들은 생명으로 부활해야 하고 그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빛으로 올라 가야 한다. 그들은 죽음을 피해야 하고 이제 전적인 힘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야 한다. 즉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사흘 만에 내 부활을 통해 내가 죽음을 이겼고 영원한 죽음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처럼 이 땅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면, 너희가 또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그러면 너희에게 더 이상 무기력하고 빛이 없는 상태가 사라지고 그러면 육체는 사라지지만 혼은 자신의 곁형체를 벗어나 빛나는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혼은 자신의 무덤에서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 이 땅의 과정은 끔찍한 고난의 과정이었고 자주 내가 실패할 수 있게 될까 봐 두려움에 빠졌다. 왜냐면 천사의 영인 내가 이 땅으로 임하게 만든 내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곁형체가 나를 억압했고 자주 내 의지와 내 힘의 강한 정도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곁형체가 나를 불안하게 했고 낙담하게 만들었고 어떤 내적인 투쟁과 고난도 나를 피해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증가했고 이 사랑과 함께 힘이 증가했다. 내가 이웃이 대적자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돕기 원하면, 내가 인간으로서 싸워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면 내가 이웃에게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 같은 길을 가도록 요구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실제 죄가 없었다. 즉 내 혼은 위로부터 왔다. 그러나 육체는 이웃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모든 욕망과 연약함과 짓눌리는 상태에서 싸워야만 했다. 이런 상태에 대항할 수단은 단지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처럼 사랑의 삶을 살면, 너희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이고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흘 만에 내 부활을 통해 너희에게 이런 힘을 증명했다. 내 혼은 무덤에서 벗어났고 내 혼은 모든 영화가 된 몸의 입자들과 함께 벗어났다. 이런 일은 모든 혼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단지 이 일이 순전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직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내 부활이 눈에 띄게 일어나게 했다. 이로써 너희 사람들에게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일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단지 곁형체가 사라지고 핵심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혼이 나를 따르는 길인 사랑의 길을 간다면, 혼은 몸을 벗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사흘째 되는 날의 내 부활은 이 땅에서 행한 내 사랑과 긍휼의 역사의 최고봉이었다. 이 역사는 실제 인간으로서 나에게 측량할 수 없게 어려웠다. 그러나 이를 통해 내 인간적 측면이 거룩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 이런 일이 너희 모든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의 목표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너희가 너무 약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내 죽음을 통해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은혜를 너희에게 구매해주었고 너희 모두가 확실하게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이 은혜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가 셋째 날에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광 가운데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밤이 너희를 오랫동안 포로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구세주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가 너희를 무덤에서 데려갈 것이다.

아멘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자신의 가시를 잃게 되었다.

B.D. No. 7086

1958년 4월 7일

 든 사람에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럴지라도 그는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 순간이 실제 끝이 아니고 그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혼이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에게 사슬이었던 이 땅의 걸형체를 버리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내 뜻에 합당하여 그의 혼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성장에 도달했다면, 이제 어려움 없이 저세상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혼의 죽은 상태는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다시 말해 사람의 혼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게 혼이 무덤을 벗어나 혼의 진정한 고향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혼이 소멸되지 않는 일은 바꿀 수 없는 법칙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것은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혼은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영적인 존재이고 그러므로 혼은 육체가 죽을지라도 계속해 존재한다. 그러나 혼이 빛과 영광 가운데 육체의 죽음 후에 부활할 수 있는 일은 내 십자가의 죽음과 내 부활 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왜냐면 혼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원죄의 집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는 항상 혼이 피할 수 없었던 어두움이었고 무덤의 어두움이었고 이 상태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치우지 않은 무덤의 돌이 있는 상태였다.

다시 말해 이런 혼들에게 아직 속죄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들의 죄짐은 속죄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 안의 혼은 어두웠고 혼들에게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었고 음산한 무덤의 밤이 혼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죽음이 혼들에게 끔찍한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3 일만에 부활했 혼이 부활했고 단지 육체와 혼이 영의 옷을 입었고 육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성장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서 가능했던 것처럼 육체가 혼과 동시에 영의 나라로 같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영화되지 않은 육체만 버려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3 일만에 부활했다.

나는 내 부활을 통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원했다. 나는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서 그들이 이 땅의 육신을 벗게 되면, 혼이 단지 거하는 장소를 바꾸는 것임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 왜냐면 내가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죽음의 순간은 단지 실제적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자신의 가시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이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은 은혜를 영접하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구원을 받게 허용하는 한 가지가 필요하고 이 전의 그의 원죄를 사함 받고 혼이 무덤의 어둠으로부터 밝은 빛으로 나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예수그리스도가 무덤에 돌을 치울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큰 죄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고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 것이다. 그는 비록 그의 육체가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가 아직 그의 죄의 무덤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내 품 안에 맡기고 그가 죽음의 순간이 임했을 때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나에게 간밀하게 부탁했다면, 그는 그의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축복스럽게 잠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자신의 육체를 이 땅에 남겨 둘 것이다. 그러나 그의 혼은 부활할 것이고 혼은 빛을 향해 올라갈 것이다. 혼은 자신 주변에서 무덤의 어둠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혼의 손을 잡고 혼의 겉형체인 육체를 벗게 이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할 것이다. 혼은 죽음으로부터 자신이 부활했고 이제 자신이 영원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알 것이다.

인간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이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로 내가 보낸 존재로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단지 먼저 가는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그들을 자신에게 데려갈 것이다.

아멘

영원의 문은 죽기 전에 건널 수 있다.

B.D. No. 1559

1940년 8월 8일

영원의 문이 열리는 사람의 이 땅의 삶이 반드시 끝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생에서 그는 이미 이 땅의 삶의 밖에 존재하는 나라를 보는 허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마치지 않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인간이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성숙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 밖의 영역과 그곳의 거주자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일은 영원의 문이 항상 육체의 죽음으로 통과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일부 이 땅의 자녀들은 영원한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장벽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그런 영역에 거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육신이 아직 이 땅에 묶여 있을 때에도 영원한 나라에 거한다.

이런 이 땅의 자녀는 또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단지 이 땅과의 모든 연결을 끊을 수 있는 순간만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영은 자신의 진정한 고향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의 영은 이제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의 의지가 허용했을 때 단지 들어갈 수 있고, 일시적으로만 거할 수 있었던 영역에서 끊임없이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가 이 땅에서 자신의 갈망이 그로 하여금 배회하게 한 영역에서 항상 거할 수 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의식적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난 후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거주지인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면, 그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했다. 그는 더 이상 저 세상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된 삶을 의심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는 그가 빛의 존재들의 역사를 깨닫고, 무지의 결과를 알고, 그가 저 세상의 영적인 존재들과 연결을 이룰 수 있기 위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 땅의 그의 운명인, 자신의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빛의 존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그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사랑과 긍휼이 이미 이 땅에서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땅의 자녀가 주님의 무한한 지혜를 증거하는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그는 스스로 이 땅에 영적인 지식을 전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땅의 사람과 빛의 존재를 분리시키는 장벽을 허물었다. 그는 이 땅에서 이미 영원에 이르는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빛의 나라에서 사는 존재들에 의해 직접 제공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진정한 죽음의 정복자가 된 이 땅의 자녀에게 죽음은 모든 공포를 잃게 된다.

너희가 단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올바른 문지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면, 하늘나라의 문이 진실로 너희를 위해 열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킬 수 있고 그럴지라도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문이 닫혀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기로 정할 때까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향하는 길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든 영의 나라에서 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가 위험과 비참함 가운데 살게 되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자 구원주로 인정할 때까지, 너희는 빛의 나라 밖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너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해야만 하고 너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할 때 보여준 길로 가야만 하고 너희 모두는 그를 따라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길이 곧바로 하늘나라로 이어지고 너희가 한때 생성되게 한 아버지에게 돌아 가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가 항상 잘못된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가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모든 너희 앞에 빛이 없고 너희가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예수를 너희의 인도자로 선택해야만 하고 저항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통해 하늘 나라의 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 사람들을 위해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 속죄의 길인 무한한 고난의 길을 갔고 아버지께 가는 길을 가로 막는 모든 장애물을 치웠고 너희가 단지 너희를 앞서 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너희가 이제 자유하고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의 짐을 덜어주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의 큰 죄짐을 인정하지 않는 혼들은 평화와 빛의 나라에 들어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항상 또 다시 쓰러지고 혼자서 일어설 수 없게 되고 위로 향하는 길을 보지 못하고 항상 아래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영원을 향한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육신의 죽음 후에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혼들에게 자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거나 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혼들의 의지에 따라 혼을 분리하고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를 보고 영원에 영원까지 아버지에게 속하게 된 사람에게 또한 복이 있다. 예수는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고 그의 나라는 그들에게 셀 수 없는 축복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문은 대적자들에게 닫힌 채로 머물러 있고 그들이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고 세상을 죽음과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까지 그들은 끝없이 오랫동안 밖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B.D. No. 5952

1954년 5월 9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만으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중요성을 잊었다. 왜냐하면 인류가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생각이 없이 자신을 아버지께 향하는 다리로 묘사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지 영과 생명이 없는 문자이고 사람들은 말씀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말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로써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확신을 가진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향해 다가갈 의지가 없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찾지 않고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자세가 멸망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이끈다. 그들은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머물고 그들이 높은 곳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곳에 머물게 된다.

사람들이 위를 향해 전혀 추구하지 않고 그들의 이 땅의 과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복음에 무관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설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에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일은 아주 불쌍하게 여길만한 상태이다. 아무도 그가 아버지께 귀환하기 위해 이 땅에 머무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끊임없이 귀환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가 믿지 않기 때문에 굳어진 생각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과 아버지 사이의 간격이 크지만 한 분이 인도하고 전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고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다리를 건설했고 이런 분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분이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먼 가운데 이 분을 지나친다. 비록 이런 분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자신에 대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진리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가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것을 활용해야만 하고 삶의 목적인 아버지와 연합하는 일에 성공하는 이 땅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구해야 한다. 아버지와 연합이 비로소 축복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보장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무관심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어떤 운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유일하게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을 도피처로 삼지 않음으로 무엇을 얻지 못하게 되는 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무엇을 얻지 못하는 지를 알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의 말

을 믿지 않는다. 비록 말씀이 위로부터 전해질지라도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자원하여 귀를 여는 다른 목소리인 세상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구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러므로 죄와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골고다를 향한 십자가의 길.

B.D. No. 6512

1956년 3월 29일

십자가를 향하는 길은 피하지 말고 가야만 한다. 왜냐면 이 길이 유일하게 너희를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다. 이 길은 골고다를 향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를 위해 가신 길이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만한다. 그러나 너희가 진지하게 십자가의 길로 그를 향한 길로 하나님의 구세주의 길로 가려 하면, 그는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면 그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이 연약해질 때 그의 손을 잡고 돕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축복의 문을 통과하려면, 너희는 골고다의 길을 가야만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너희 자신이 그려볼 수 있게 해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고백을 해야만 한다. 너희는 동시에 생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해야만 하고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머물러야만 한다. 그의 고난이 너희 심장에 전달돼야만 하고 그의 고난이 너희 안에서 사랑이 밝은 화염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너희의 고난이 돼야만 한다. 너희는 그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일이 너희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해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는 그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너희가 생명력 있게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가장 큰 영적인 체험에 대해 같은 행함을 요구하는 이런 한가지의 행함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해보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자신 스스로 모든 고요함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해 그의 죽음까지 동참하며 구원의 역사를 생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이 과정을 생각으로 떠 올려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더욱 깊어 질 것이다.

그에게 향하고 그와 함께 하는 이런 십자가의 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면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의 구원사역의 큰 비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의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를 향한 사랑이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더 이상 그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그의 구원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큰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과정은 단지 이에 대한 말로 머무르지 말고 너희는 너희 안에서 이 과정이 생명력이 있게 해야만 한다. 너희는 그가 견딘 극심한 고난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자주 생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십자가는 너희에게 빛을 주고 복된 문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생명력이 있게 그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신이 비로소 구원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자의 크나 큰 사랑에 너희의 혼이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혼은 더 이상 그를 놓치려고 하지 않게 된다. (1956년 3월 29일) 그러면 너희가 골고다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그와 함께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 혼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혼이 진정한 생명으로 깨어났기 때문이고 혼을 위해 죽은 분 때문에 혼이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또 다시 아주 깊은 내면으로 묵상해야만 하고 사람이 항상 또 다시 그의 사랑의 사역의 비밀을 알기 위해 그의 삶과 죽음을 묵상해야 한다. 왜냐면 그가 예수의 사랑의 사역을 의식하면 할수록 더욱 그의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기 때문이다. 사랑이 이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십자가를 지게 재촉한다. 사랑은 십자가의 과정의 고난을 자신이 짊어 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활용하고 동시에 자신이 이에 동참하기 위해 사랑은 모든 것을 행할 자세를 갖게 된다. 왜냐면 사랑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의 문을 열었다.

B.D. No. 6850

1957년 6월 12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너희 모두에게 빛과 영광의 생명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과 여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과 영광의 생명의 문이 닫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한다. 왜냐면 그의 이 땅의 여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아야 하고 너희가 그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려면, 십자가로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그의 이 땅의 삶의 목표였다. 왜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 인간들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발견하게 된다. 이말은 너희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너희의 죄를 그의 십자가 아래 그에게 옮기는 일을 의미하고 이로서 그의 신적인 사명을 믿는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고 이로서 너희가 너희를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분리시키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너희의 의지를 선언하는 일을 의미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나 자신을 깨닫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생의 문에 도달하려면, 너희는 골고다 십자가로 가야만 한다. 왜냐면 다른 어떤 길도 이 문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너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너희는 질문하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의 사랑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반복적으로 전달되

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항상 또 다시 들을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귀를 막고 모든 말이 공허한 소리처럼 너희를 스쳐 지나가게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의 역사에 관해 듣는 내용은 너희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너희 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 너희 안에서 아직 생명력이 있게 되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의 귀로 들은 것을 아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언젠가 축복의 문 앞에서 기다려야만 하게 될 것이고 입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구속받지 못했고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고 그의 피가 너희를 깨끗이 씻을 수 없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 가득한 가운데 영원의 문 앞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너희 자신이 그에게 나아가야만 하고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너희의 죄를 의식하고 그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고 그가 너희를 돌보고 또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기를 진심으로 간구해야만 하고 너희는 그의 용서를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죄짐은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고 이제 빛으로 가는 길이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이제 영원한 축복의 문이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 너희가 여전히 그의 이름이 모든 것임을 믿기 원하고 깊은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너희를 여전히 짓누르는 죄의 결과인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을 믿기 원하면, 내가 이런 큰 죄짐을 너희에게서 넘겨받기 위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임했다.

이 땅에 사는 너희가 탄식하는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그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고 십자가에서 그의 이 땅의 길을 마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이뤄야만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그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자신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나를 믿는 사람.

B.D. No. 1901

1941년 4월 29일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보라, 죽음의 가시를 없애는 일이, 이로써 나를 따르는 사람들인 나의 자녀들이 죽음의 공포를 맛보지 않게 하는 일이 나의 뜻이다. 왜냐면 나를 믿는 믿음이 혼이 고통이 없이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혼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기 때문이다. 내 자녀가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드렸다.

내 육신이 자원하여 모든 고통을 짊어졌다. 이로써 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했고, 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고통이 없이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왜냐면 그의 믿음이 나를 향한 그의 갈망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녀는 간격을 극복했고, 아버지께 가는 길을 찾았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 왜냐면 그들이 진실로 내가 낙원의 문을 열어주는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자신의 창조주이자 구세주로 믿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마친 사람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추구한 사람을 나는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한다. 나는 그들을 내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한 나라로 인도한다. 왜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또한 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내가 그의 뜻을 축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육체의 죽음은 단지 자녀가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열어 준다. 내 사랑이 혼을 위로 끌어 올린다. 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자마자, 나의 종들에 의해 위에 있는, 혼이 이제 머물게 될, 빛이 충만하고, 선명한 영역으로 인도를 받는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너희는 슬퍼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혼이 이 땅에 남겨둔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너희로부터 생명을 취한다. 나는 모든 영광으로 생명을 너희에게 돌려줄 수 있기 위해, 너희에게서 생명을 취한다.

아멘

죽음에 대한 두려움.

B.D. No. 6616

1956년 8월 8일

죽음은 단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가는 통로이다. 너희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이 내 뜻과 일치하고 너희가 이 땅의 과정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았다면, 너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죽음 앞의 어떤 공포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너희 혼이 이 땅의 육체가 완전히 불필요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육체를 벗어날 수 있게 된 일을 단지 기뻐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 된다고 말할 수 없고 자유롭게 빛과 생명이 충만한 삶이 혼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고 그는 육체의 죽음 후에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 세상적인 육체가 영적인 육체로 단지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은 계속 존재하고 단지 그의 겉 형체가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영의 나라에 머물기 위해 이런 겉 형체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너희 모두는 너희 자신에게서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죽음은 진실로 그의 가시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죽음 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의 나라에 머물기 위해 너희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다. 너희의 혼이 육체의 죽음 후에 빛으로 충만한 빛나는 영적인 옷을 입을 전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는 올바른 두려움이다. 왜냐면 너희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무거움이 아직 너희에게 달라붙을 수 있고 육체의 죽음 후에 깨어나는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혼이 얼마나 온전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이 너희는 깨어날 것이고 혼은 자신이 소멸되지 않았고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운명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너희는 죽음을 이긴 분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영원히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라. 불안한 때에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너희의 혼을 의탁하라. 그가 혼을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가 너희 혼에게 공황을 베풀고 너희 혼이 생명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주기를 구하라. 너희는 진실로 이런 기도를 절대로 헛되이 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축복된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 안식은 단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력이 있게 믿는 믿음이 모든 죽음의 공포를 물리친다. 왜냐면 사람이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자신이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가 무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무로 사라져 소멸 된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 땅의 삶을 산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깨어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을 부르면, 그들은 단지 그들의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죽음은 단지 새롭고 불멸한 생명으로 전환되는 일이고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극복했고 구속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그의 대적자가 세상에 가져온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와 예수의 부활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알지만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속사역과 부활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굳은 확신을 주고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제거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잠들고 빛과 축복의 나라의 주님이 계신 곳에서 기쁨으로 깨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에게 영원히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나를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한다는 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그러나 너희가 약속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설명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생명력이 있는 믿음에 도달하기 원하면, 너희는 사랑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 왜냐면 사랑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잉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내적인 확신이 너희들 안에 없으면, 너희는 구속사역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말을 지키고 믿음에 대해 말하지만 진실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 왜냐면 너희에게 모든 연관 관계에 대한 지식이 너희에게 비로소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단지 죽은 믿음에 관해 말을 깊은 내적인 확신이 없는 말을 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에게 제공되는 믿음의 가르침에 저항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너희에게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에게 옹호하게 요구하면, 너희는 절대로 이런 가르침을 옹호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전에 내가 믿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는지 헤아려 봐야만 한다. 너희는 나와 내 구속사역에 대해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에 대한 자세를 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지 너희가 가르침 받은 대로 그렇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너희에게 내적으로 의심이 일어나는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시험이 너희 편에서 모든 진지함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믿을 수 있을 지는 사랑의 정도가 큰 역할을 한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의심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땅에서 인간 예수의 사명과 구속사역의 의미가 그에게 선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가 인류의 죄 때문에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린 것을 안다. 하나님의 구세주의 공훈의 역사는 그에게 이해할 만한 역사이다.

그는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깨닫는다. 그는 구속사역이 없이는 자신이 축복 될 수 없음을 안다. 그 자신이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한다. 그는 나를 믿는다. 그러므로 그는 내 약속의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왜냐면 그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믿음은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믿음은 말하는 방식이 아니고 단지 입이 말하는 말이 아니고 심장에서 생명력이 있게 느끼는 말이다. 이런 믿음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믿음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표현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사람에게 일하지 않고 머물게 하지 않고 항상 역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킨 사람에게 그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내 모든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약속들은 진리이다. 약속들은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약속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축복과 생명을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는 사랑이 이루는 나와 내적인 연결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축복과 생명을 줄 수 없다. 믿음이 올바르면,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의 완성을 추구한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믿음의 능력으로 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자신을 생성되게 한 나에게 다시 돌아가기 원한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사람들에게 해준 모든 약속이 그에게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어떠한 영적인 성공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비록 그가 그에게 전해진 믿음의 가르침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는 이 가르침을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변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에게 사랑이 부족한 동안에는 그에게 이렇게 하기 위한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왜냐면 사랑이 행하게 만들어 주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생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내 자녀로서 빛과 능력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멘

위로가 충만한 아버지의 말씀. 죽음을 알려줌.

B.D. No. 5493

1952년 9월 24일

너희 사람들이 위험 가운데 있다면, 내 품으로 도피할 수 있는 일은 너희가 벌어드리지 않은 은혜이다. 너희는 항상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과 너희의 안전에 열린 귀를 가지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내가 너희의 부름을 기다리고, 내가 내 자녀들이 모든 생각을 통해 요청한 도움에 응답하는 것을 안다. 나는 너희가 내 도움을 체험하기 위해 모든 세상적인, 영적인 위험에서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나는 크거나 작은 위험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소원하는 도움이 너희 혼의 성장에 합당한지 아느냐? 너희가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 너희는 실제 내가 너희를 도와주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도와줘야 할지 기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무엇이 너희 혼에게 도움이 되는 지를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너희 자녀들은 내 사랑을 소유하고 있고, 너희 모두는 이 땅에서 나와 연합이 되는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나는 이를 위해 도움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축복되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모든 크고 작은 염려와 위험을 나에게 알려야 하고, 모든 안전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 와야 한다. 너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믿음을 기도를 통해 표현하면,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왜냐면 깊은 믿음은 이미 높은 성장 정도에 이른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사랑을 통해 나와 연합을 이미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기적적인 내 도움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는 동안에는, 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고, 이로써 사랑이 연약한 동안에는, 나는 자주 너희가 간청하는 것을 들어 주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나 항상 단지 너희 혼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의 돌봄에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

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항상 모든 것을 인도함을 신뢰해야 한다. 그러나 육체의 삶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지 말고, 이를 단지 혼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라. 너희가 혼을 돌보고, 죽음 후의 혼의 상태를 생각하고, 혼의 생명을 위해 돌보고 역사하면, 너희는 죽음에 대해 놀랄 필요가 없다. 죽음은 단지 너희에게 빛이 충만한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절대로 이 땅을 다시 갈망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비로소 살게 되고, 내 가까이에서 말할 수 없게 축복될 것이다.

아멘

태어나고 죽는 일. 죽음. 영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

B.D. No. 2554

1942년 11월 17일

사는 일과 죽는 일은, 생성되고 사라지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영원한 순환이다.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이런 영원한 순환에서 자신의 해답을 찾고, 큰 비밀을 알게 된다. 존재하는 것은 다시 존재하기 위해 사라져야만 하고, 항상 또 다시 새로운 것이 형성된다. 왜냐면 물질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은 사라져야만 한다. 왜냐면 그것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온전하게 되기 위해, 다시 생성돼야만 한다. 왜냐면 단지 겉형체만이 분해가 되지만, 겉형체 안에 거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고, 새로운 겉형체를 살아 있게 하기 위해 겉형체를 벗어나는 영적인 존재는 불멸하는 존재이다.

이런 영적인 존재는 온전하게 돼야만 한다. 여기에 모든 생성되고 사라지는 일의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물질 세계의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없다. 왜냐면 물질 세계는 온전한 것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물질 세계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에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가 온전한 정도에 도달하면, 영적인 존재는 물질 세계인 이 땅을 떠나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의 높은 성장을 위해 생성되고 사라지는 일이 필요하고, 모든 사라지는 일은 환영받아야 하고, 생성되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어떤 형체가 사라지는 일은 그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극복을 의미하고, 이런 극복은 승리이다.

사람이 이런 깨달음에 도달했다면, 어떤 것도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하는 일은 없다. 그러면 그는 또한 죽음을 영의 나라로 들어가는 다리로 본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인 혼이 이제 방해를 받지 않고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겉형체를 벗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혼의 성숙을 위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한 가지 일이 선행돼야만 한다. 인간이 관점을 위로 향하게 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면, 그는 의식적으로 위를 향해 추구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의 출처와 자신의 목표를 알게 되면, 그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그에게 죽음은 이 땅의 마지막 형체를 극복하는 일을 의미하고, 혼은 이제 최종적으로 겉형체를 벗어나게 되고, 이로써 물질 세계를 벗어나게 된다. 겉형체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깨어난다.

(1942년 11월 17일)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목적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들은 물질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이로써 그들은 그들에게 이 땅의 실제 과제를 깨닫게 해줄 모든 영적인 생각을 억누른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마지막 겉형체를 혼을 성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로써 죽음은 이 땅의 그들의 경력의 끝이고, 다른 모든 창조물들 안에서 위로 성장하는 일이 마지막 이 땅의 삶의 단계에서 정체되고, 성장이 중단되게 된다.

그러면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깨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죽음의 상태가, 생명이 없는 상태가 혼의 운명이 된다.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이 땅에서 생성되고 사라지는 일이 끝이 난다. 영적인 존재는 항상 계속하여 더 높은 성장을 이루면서 모든 단계를 거쳤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인간의 단계에서 실패했고, 스스로 성장하는 일을 중단했다. 왜냐면 인간의 단계에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그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의미해야만 하는 일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단지 온전한 존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릴 권리를 얻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의 잠과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깨어나는 일의 오류와 진정한 의미.

B.D. No. 3916
1946년 10월 27일

죽은 사람은 몸이 단지 쉬게 된다. 즉 몸은 모든 이 땅의 활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 땅의 물질은 자신이 다시 전적으로 영적인 입자로 변화되어 날라가게 되기까지,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체의 거주지를 제공하면서, 창조주가 부여한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혼은 몸의 휴식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혼은 실제 활동하지 않고 없이 저세상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안식 상태가 아니라, 가장 크게 무기력한 상태이고,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왜냐면 혼이 이를 의식하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휴식이라고 말할 수 없고, 빛의 영역으로 가는 길을 찾는 온전함에 도달한 혼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게 휴식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면 이런 혼들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그들의 활동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깨어날 때까지 잠을 잔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실제 일어날 것이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권세를 깨닫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덤에서 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저세상의 영역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죽음의 쉼을 생명을 증명하는 활동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런 혼들은 또한 심판의 날에 물질 안으로 새롭게 파문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갈망할 만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쉬는 상태를 맞볼 수 있게 된다. 왜냐면 혼이 저세상에서 퇴보를 한다면, 혼이 스스로 물질을 추구하고, 혼의 의지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깨어나는 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육체는 실제 더 이상 혼을 섬길 필요가 없는 안식을 찾는다. 그러나 물질의 영적인 입자는 계속하여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켜야만 한다. 육신이 죽은 후 혼이 생명의 상태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 혼은 불쌍하게 된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거나 또는 영원한 멸망으로 부활하는 일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지식을 얻고, 가장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일로 이해해야만 하고, 그러나 악한 사람은 심판 받기 위해 깨어나는 일로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면 선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사

람들은 육체의 죽음 후의 삶의 상태를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혼들은 또한 그들의 창조물을 통해 새 땅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들은 오래 전에 이 땅을 떠난 후 영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바꾸고 활동적
이 될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들의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고, 죽음의 침을 선호
했기 때문에 점점 더 무기력 해져, 영적인 존재가 자신을 더 굳어지게 하고, 이 땅의 창조물 안
으로 새롭게 파문을 받기에 충분하게 만들었다. 이런 혼들도 동시에 그들의 무덤에서 깨어난
다. 왜냐면 그들이 다시 낮의 빛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비록 생각할 수 없게 긴 시
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제공될지라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죽은 모든 존재가 마지막 날에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명을 위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 깨어날 것이다. 이런 죽음의 잠을 가며 쉬지 않고, 이 땅이나 영의 나
라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그들의 활동이 세상적인 수고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침을 구하고, 자신을 게으른 잠에 빠지
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면 그들은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깨어나는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멘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B.D. No. 5449

1952년 7월 26일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는 이런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너
희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을 약속하면서, 나는 동시에 내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
자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했다. 내가
이를 통해 말하기 원하는 점은 너희가 이 땅에서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일을 영의 나라에서 추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면 내가 영의 나라에서 너희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단지 이 땅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창조물들은 성장을 위한 장소이다. 이
장소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마침내 자신의 성장을 이룬 존재들을 위한
장소이다. 성장을 이룬 존재는 하늘의 축복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인 창조물을 소유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 끝없는 사랑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존재는 항
상 아버지가 그에게 마련한, 그의 사랑의 정도와 내 나라에서 역사하고 역사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합당한, 내가 그에게 지정해준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떤 존재도 고향이 없는 존재는 없고, 영원한 고향이 모
든 혼들을 영접한다. 그러나 이 고향은 아주 다양하다. 고향은 가장 영광스러운 꽃의 정원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고향이 끝없이 넓은 광야이고, 이를 거너는
데 영원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이런 광야에서 꽃이 많은 땅으로 가는 길이 갈
라 진다. 여행하는 자가 이런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가 이런 광야를 빠져나갈 길을 구해, 그
런 길로 들어 설지에 달려 있다.

모두가 내 영원한 고향에서 영접을 받을 것이고, 모두에게 이런 거할 곳이 소유할 수 있도록 주어져 있다. 처소가 어떤 상태인지는 유일하게 그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했다. 왜냐면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가 스스로 자신의 온전한 정도에 따라 거할 곳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그의 처소가 아직 초라하다면, 이 처소는 그의 의지와 그의 수고를 통해 빠르게 바뀌질 수 있다. 혼이 단지 가장 사랑스러운 처소를 갈망하고,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 추구하면, 이런 처소가 만들어 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 곁에 셀 수 없이 많은 돕는 자들이 함께 하고, 너희와 함께 창조하고 역사할 것이다. 이 전에는 황량하고 사막 같은 영역이 낙원과 같은 장소로 바뀔 수 있다.

모든 혼은 언젠가 자신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혼이 온전하지 못한 동안에는, 비록 혼이 한때 자신이 생성되어 나온 나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혼은 자기 집이 없는 것으로 느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다. 비록 성장을 위해 자주 오랜 기간이 필요할지라도, 성장하는 일이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다. 집을 나간 탕자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고, 그가 한때 소유했던 처소에 다시 들어갈 것이고,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주변으로 모이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게 될 것이고, 자신 옆에 자리를 제공하는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사랑이 충만하게 영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모든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 집에서 처소를 찾을 때까지 끝없는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비록 끝없는 시간이 흘러 갈지라도 나는 어떤 내 자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을 이끌고, 어떤 내 자녀도 이런 사랑에 영원히 저항할 수 없다.

아멘

저세상에서 재회하는 일.

B.D. No. 6312

1955년 7월 15일

영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 너희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떠난 후에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지는 너희 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혼의 성숙한 정도에 달려 있다. 왜냐면 성숙한 정도가 높지 않아 영으로 보는 일이 불가능하면, 혼이 먼저 성숙한 정도에 도달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은 어느 정도 성숙해야만 받은 인상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혼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존재를 알아볼 수 있기 위해 혼은 빛 안에 거해야만 한다. 비록 성숙한 정도가 낮은 혼도 자신이 존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지라도 혼에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안에는 혼은 그들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존재의 행복은 이제 이 땅에서 그들과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숙한 결과로 이미 빛 안에 거하는 혼들은 항상 영적으로 같은 성숙함에 도달한 존재들에게 다가가 교제하거나 아직 연약한 혼들이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연약한 혼들에게 다가간다. 그러므로 성숙한 혼은 혼을 깨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반대는 아니다. 왜냐면 연약한 혼은 추구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하지만 증거를 통해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연약한 혼이 이 땅에서 빛의 혼이 자신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빛의 혼이 연약한 혼에게 접근하면, 그런 일은 항상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선물은 또한 성숙한 영적인 존재에게 속한 은혜이다. 영적인 존재는 이런 재회로 인해 말할 수 없게 행복해하고 이제 아직 성숙하지 못한 혼들도 이런 행복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 혼들은 가장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혼들을 격려하는 일을 줄이지 않는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혼들은 아직 혼들을 깨닫지 못한다. 왜냐면 혼들이 같은 곁형체와 같은 옷차림으로 성숙하지 못한 혼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들과 가까운 혼들을 향한 갈망이 그들과 가까운 혼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이런 갈망이 엄청난 동력이 될 수 있고 깨닫는 순간이 오면 그들은 무한히 감사해하고 행복해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보살핌을 깨닫고 어둠 속에서 아직 고통당하는 혼들을 같은 방식으로 보살피고 또한 혼들을 높은 곳으로 도달하도록 돕는다.

다시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다시 만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때를 정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이미 이런 깨달음을 확실하게 얻었다면, 너희는 최소한 이 땅에서 너희가 빛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즉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또는 너희가 이제 그들을 향한 너희의 구속사역을 이미 시작할 수 있기 위해 그들이 알지 못하게 그들과 연결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완전히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 저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돌보라.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돌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은 상태로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돌보라. 그러면 들어가는 일이 너희에게 이미 다시 만나는 기쁨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너희는 서로 간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일이 단지 법칙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너희가 언젠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의 나라에서도 너희의 자유의지가 존중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라.

B.D. No. 7096

1958년 4월 18일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라. 영원한 생명이 언젠가 너희 모두에게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너희가 아직 끝없는 고통과 어둠 가운데 전적으로 빛과 능력이 없는 상태인 죽음 가운데 영원한 기간 동안을 보낼 수 있다. 너희는 이런 고통이 가득한 기간을 끝 없이 연장시킬 수 있다. 이로써 너희가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자유의지로 너희 자신에게 만드러내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인간으로 존재를 활용하지 않으면, 항상 또 다시 새롭게 만드러내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영원히 멸망 받게 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내가 원래 초기부터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죽음의 상태를 선호하면, 너희 자신이 내 손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때가 되기 전에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왜냐면 너희는 단지 자신이 영원

으로부터 생명인 분에게 너희 자신을 의탁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성과 자유 의지를 가진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과제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단지 원하기만 하면 되는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 땅의 기간은 아주 짧다. 너희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너희에게 선물 되어지는 것을 위해 너희에게 큰 희생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으로서 사는 기간은 아주 짧지만 그러나 이 기간은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너희가 인간의 단계 도달할 수 있기까지 이 전에 너희의 성장 과정은 끝 없이 긴 기간이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너희의 의지에 결정을 새롭게 다시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까지 끝 없이 긴 기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이 기간은 너희 사람들이 이 기간의 길이를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원한 기간이다.

왜냐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희 생각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의 이 전의 성장 과정의 기간에 대한 기억을 너희가 빼앗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 고통이 어떠한 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최종적으로 나에게 귀환을 결단하면, 너희는 내 나라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알지 못한다. 왜냐면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축복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믿어야 하고 이제 이 믿음에 합당하게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내 나라의 축복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 비록 너희에게 믿을 수 없게 보일지라도 너희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너희 이성의 생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물질적인 세상과 관련이 전혀 없는 일에 관해 하는 말을 들어야 하고 이에 관해 생각하고 그의 말이 옳으면, 너희가 어떻게 실제 합격할지 상상해봐야 한다.

너희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다. 이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기간처럼 몇 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 최고로 축복된 상태에 너희가 원래 초기에 가졌던 빛과 능력의 상태에 관한 문제이다. 빛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기간을 위해 너희는 전적으로 가치없는 것들을 포기하기 위해 단지 아주 짧은 영원에 비할 때 눈 깜짝할 사이인 시간만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가치가 없는 것들에 특별하게 높은 가치를 둔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을 잃고 다시 영원한 기간 동안 죽은 가운데 머문다. 너희가 생명으로 도달할 수 있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은 내가 계속하여 너희에게 내 일꾼을 보내 일꾼들이 내 사명을 받아 너희에게 경고하고 권면해주면서 너희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시도하게 자극해주는 일이다.

진리는 너희에게 유일한 진리인 너희의 생각을 밝혀주는 나를 알려준다. 진리는 내가 너희를 붙잡아 나에게 이끌 수 있게 나 자신과 연결을 이루라는 조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첫걸음을 내딛어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축복을 위해 너희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지원하고 나에게 향하려는 가장 연약한 의지를 강하게 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모든 창조물을 생성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죽음을 원하지 않

는다. 나는 너희가 살고 너희의 이미 영원히 지속 된 죽음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벗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내 사랑을 너희에게 다시 베풀기 원하고 너희 모두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영광스러운 운명을 맞이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한때 너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고 너희를 죽음에 도달하게 한 자를 다시 자유의지로 따르면, 너희가 다시 깊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가면, 나는 너희를 막을 수 없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를 부를 수밖에 없다.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자유의지로 이런 내 부름을 따라야만 한다. 너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생명을 얻으려고 해야만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생명을 얻게 너희를 도울 것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죽음... 슬픔... 불쌍한 혼과 기도...

B.D. No. 0470

1938년 6월 17일

주님 안에서 잠이 들고 빛이 충만한 저 세상에서 깨어나게 되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삶 가운데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너희가 영원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이면, 삶을 아주 쉽게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동시에 단지 영원을 위해 살고, 또한 너희가 고난의 시간을 영원과 비교하면 모든 고난이 짧은 시간 내에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고통의 열매를 영원한 기간 동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죽음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러나 더 축복 되다는 것이 항상 너희에게 위로를 주기에 충분해야 한다. 너희의 죽은 자를 묻는다면, 너희는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너희가 혼이 이 땅의 삶을 더 아름다운 삶과 바꾸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떨쳐버리고 이제 어려움이 없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모든 세상적인 것 보다 아름답고 행복이 더욱 빛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날이 너희에게는 내적인 기쁨의 날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너희가 슬퍼하겠느냐?

그러므로 이미 이 땅에서 저 세상의 그런 운명에 도달하려고 하라. 너희가 세상에 묶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라. 너희는 쉽게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아주 어렵게 될 것이다. 그는 세상의 재물과 이별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심장은 세상의 물질에 아주 연연해한다.

이런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그들에게 이 땅의 안락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준비된 장소를 찾지 못한다. 그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이런 처소를 위해 일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저 세상의 행복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섬겨야만 한다. 혼이 이 땅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혼이 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얻었어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이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해 사람이 이런 혼을 위해 슬퍼할 권리가 있다.

이런 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아주 필요한 너희의 능력을 주는 것이다. 이런 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랑으로 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혼이 삶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 그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까지 이제 굶주려야만 하는 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향한 주님의 돌봄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너희의 도움에 대해 심장으로 너희에게 감사하게 될 그들에게 너희의 도움이 임하게 하라. 오류에 빠졌었고 결국에 빛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한 올바른 길로 인도받기 위해 애써야만 하고 싸워야만 하는 그들을

생각하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너희는 이 땅의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너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도록 항상 단지 주님을 구하라.

아멘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일.

B.D. No. 1402

1940년 4월 30일

너희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염려하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른 사람들로 인해 울지 말라. 다시 말해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위로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고생하게 너희에게 염려와 환란을 보내지 않고, 고난을 통해 너희 혼이 성장해야 할 너희 혼을 위해 보낸다. 너희가 너희에게 사랑스럽고, 귀한 한 사람을 잃는다면, 십자가의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의 고통은 줄어들 것이다. 너희는 고난을 너희 어깨에 짊어지면, 너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지는 것이다.

주님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 졌다. 그러나 너희가 고난에 복종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고난을 견디면, 너희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혼이 이 땅의 골짜기를 떠났다면, 혼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지 말라. 왜냐하면 혼에게 자유의 시간이 임했고, 모든 이 땅의 어려움이 혼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이, 주님이 혼을 자신의 나라로 불러들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삶을 마치게 했다는 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한다. 이 땅의 삶은 쉽지 않았고, 혼은 이제 이 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너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혼은 이 땅의 삶을 평안이 충만한 영원한 삶과 바꾸었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B.D. No. 7247

1959년 4월 6일

슬퍼하고 염려하며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 모두는 위로를 받아야 한다. 내 사랑이 항상 너희를 뒤따를 것이다. 내 사랑은 너희가 고난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올바른 위로자인 내 영을 너희에게 사랑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주는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기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육체적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 거하지 않게 되면, 내 영이 너희를 위로해줄 것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이 땅의 과정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된다. 나 자신이 영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 원하고 그들이 외롭거나 버림받은 것으로 느끼지 않게 하고 그들이 슬퍼할 필요가 없게 하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게 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나에게 위로와 능력과 사랑을 구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 영은 진실로 위로자이다. 어느 사람이 실제로 너희에게 영원한 사랑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사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냐? "나는 너희에게 진리의 영인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내

가 약속한대로 영원한 사랑은 영을 통해 자신을 나타낸다. 내 비추임인 이 영은 진실로 너희를 올바르게 세우고 위로 해줄 것이다. 그는 너희가 무능력하게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은 너희를 강하게 하고 항상 또 다시 용기와 능력을 줄 것이다. 너희는 항상 이 땅의 삶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영의 불씨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의 위로를 받기 위해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연결을 이루면, 너희가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심장이 슬프다면, 사람들이 세상적인 위험이나 또는 영적인 위험 속에서 절망하면,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내 영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진실로 너희가 능력을 얻고 위로받는 가운데 올바른 목표를 향한 너희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단지 한 길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고 내 말은 너희 심장을 쾌활하게 하는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내 말은 모든 고통을 줄여주고 모든 비밀스러운 위험을 해결한다. 내 말은 너희 심장에 들어갈 것이고 고통 속에 그가 필요한 위로를 해줄 것이다. 내가 제멋대로 "나는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기 원하면, 그들이 빠지게 될 많은 위험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예수를 따르는 길 가운데 고난이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 위로를 보장해주기 원했다. 내가 순수하게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속한 그러나 위로와 능력이 필요하고 그의 위험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지만 단지 인간으로써 볼 수 없는 나 자신이고 내 영인 위로자를 약속해주었다.

그러나 내 영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 안의 영의 불씨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위로하는 역사를 할 수 없다. 위험에 빠진 내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의 부름이 내 귀에 도달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만 한다. 부름을 받으면, 실제 나는 도와줄 준비되어 있다. 나를 믿고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내 위로자를 약속했다.

그러므로 무엇이 사람을 짓누르던지 간에 어떤 사람도 절망할 필요 없다. 왜냐면 그는 항상 나에게서 도움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분명하게 이런 도움을 그에게 보장해주어 내 영이 드러나게 할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진리의 영인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라는 내 약속의 말씀대로 내 영의 역사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절망을 하거나 놀림을 받으면, 너희는 내 이런 약속을 의지할 수 있다. 내 말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자신의 위험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느 누구도 내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을 염두에 두라.

B.D. No. 2912

1943년 10월 6일

죽음의 시간을 명백하게 의식하라.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영원을 위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질문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이 너희의 이 땅의 기간을 위해 너희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계산해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54/56

앞에서 합격할 수 있는 지 점검해보라. 너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 점검해보라. 너희가 사랑을 실천했는 지 점검해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매시간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돼있는 지 스스로 점검해보라. 죽음으로 너희의 힘도 끝이 난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의 혼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이 땅을 떠나면, 너희가 더 이상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생각하라. 너희 자신이 만족하는 가운데,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지 자문해보라.

자신에 대해 가장 엄격한 비판을 하라.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아직 너희에게 주어진 매일을 활용하라.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아직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직 너희를 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을 행함으로 이 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죽음을 명심하라. 하나님이 죽음의 시간을 정하면, 너희가 한 시간도 늦출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달으라. 하나님께 긴밀하게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원을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너희의 성장을 보장해주는 힘을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라.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는 목표를 단지 명심하라. 이런 목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 것이다. 항상 매일이 이 땅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는 자신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살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없이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평화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죽음아 너의 가시가 어디 있느냐?

B.D. No. 7480

1959년 12월 17일

너희가 생명력이 있게 나를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라고 너희에게 약속한 너희의 구원자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추구하면, 너희의 종말은 축복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영의 나라의 나에게 데려 갈 것이다. 너희의 죽음의 순간은 단지 너희의 거하는 장소를 바꾸는 것이고 너희 혼은 이 땅과 영의 나라를 바꾸고 말할 수 없게 축복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어려움이 혼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혼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며 신뢰 가운데 따를 것이다. 왜냐면 혼이 영의 나라의 문턱에 그를 기다리는 나를 그의 구세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왜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죽음과 내 부활을 통해 죽음의 가시를 제거했다. 내가 내 피로 너희를 구매했다. 너희는 이런 생명을 얻고 영원히 더 이상 잃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는 죽음의 순간을 근심스러워한다. 너희 이웃에게 어떻게 보이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축복된 종말을 준다.

왜냐면 나 자신 만이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지 안다. 이런 사람은 죽음과 죽음의 끔찍함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나에게 속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 이 땅에서 나를 따르,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원하고 고백한 그를 위해 고통이 심하게 죽었기 때문이다.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 드려라. 내가 죽음에 대한 권세자임을 내가 그의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속하게 된 모든 사람이 모든 죽음의 끔찍함을 파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가 육신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고통의 정도를 정하고 내 사랑이 함께 역사하고 사람들에게 그가 가진 능력과 자신의 혼을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죽음아 너희의 가시가 어디 있느냐? 지옥아 너희의 승리가 무엇이나?”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내가 어두움의 권세에 대항해 얻은 내 승리에 동참하게 할 것이다.

나는 나를 따르는 싸움의 위험의 시간에 나에게 신실하게 남는 사람들에게 축복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견디고 나에게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기 위한 능력을 그들에게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굳은 믿음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승리이다.

너희의 사랑이 너희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유일하게 너희의 사랑으로부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나온다. 그러므로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죽음은 너희에게 단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원하여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영역을 빛과 축복의 나라의 영역과 자원하여 바꿀 것이다. 너희는 혼이 평안하고 조화로운 곳으로 갈 것이다. 너희는 어떠한 어두움을 지나갈 필요 없고 빛의 옷을 입고 너희가 전에 전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너희에게 영광을 약속해주는 내 나라로 갈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면, 그 자신이 너희를 이 땅으로 오지 않은 나라인 그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멘